

직물용어 해설-08

* 아라크네(Arachne)

체코에서 발명, 개발되었다. 독창적인 신형의 직물을 제작하는 기계이다. 우선 소면기에 면이나 합섬 스테이플을 통과시켜 웹을 만든다. 웹으로 경편의 조직으로써 편사를 편성하여 포지를 형성한다. 웹에 니들을 찢러 통과시킨 실을 재봉하듯이 편성하기 때문에 니트 스티치 본딩(knit-stitch-bonding)이라고 한다. 유사한 방식의 기계가 독일에서도 생산되고 있어 마리와트(Maliwatt)라고 한다. 무지염, 편면 기모하여 유아 모포, 유유아의 포대기, 나이트 가운, 방한화 안감, 아동복의 몸판 등에 사용된다. 무지염 날염하여 커튼, 베드 스프레드에도 사용된다. 아라크네는 그리스어의 거미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작이 뛰어난 리디아 여자가 아테네의 여신의 도전을 받아서 아름다운 모양의 직물을 짜는 경주에서 우승하였으나 여신의 노여움과 질투를 받아 거미로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이름이 붙었다.

* 아문젠(Amunzen)

레이온, 면, 모,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로 도비를 사용한 능조직의 크레이프 직물로써 이지직으로 제작한다. 외관, 조직 모두 이지직이라던가 모스 크레이프 등과 같다. 아문젠은 원래 소모 직물의 일종이다. 모직물로써는 바닥이 얇은 고급품이다. 바닥은 조밀하고 경위사가 균제하게 되어 있고 촉감은 양호하고 날염하기 쉽다. 모 아문젠으로는 무지의 것 이외에 다채로운 날염 무늬가 있다. 가는 가로 무늬를 넣은 것이라던가 대신에 연사로써 격자를 넣은 것도 많다. 대체로 색조는 밝은 감의 것이 많다. 면 아문젠은 사염한 격자 무늬가 많으나 필염, 날염물도 많다. 변수가 다른 실이라던가 매듭이 있는 실을 혼합하여 제작하여 직물 면의 효과를 한층 복잡하게 한 것도 있다. 기모를 시행한 것도 보인다. 아문젠이라고 하는 명칭은 옛날의 것으로써 머리를 짜낸 규격의 것에는 바니란 등 새로운 감각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가는 변수의 실을 사용하고 조직을 성기게 하여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제작한 것은 산뜻하고 청량한 여름용이다. 모직물은 원래 날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조직의 직물은 날염하기 쉬운 것이 발견되어 미주

(尾州)에서 날염에 성공하여 1930년 봄부터 시장에 출하되게 되었다. 바로 그 즈음에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젠(Amundsen) 이 극지 탐험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직물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봄철 여성 코트, 드레스, 아동복 등에 사용한다.

* 아뮤어(Armure)

견,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면, 모, 비닐론,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고 12매의 종광을 사용하여 브로큰 와프 리브(broken warp rib)조직을 나타낸 소모 직물이다. 경사에 모헤어와 소모사를 1올씩 번갈아 끼우고 60's 또는 40's/2 쌍사, 위사는 소모사 단사 26's~32's 밀도는 경사 72올/2.54cm, 위사 68올/2.54cm이다. 이 밖에 경사를 한 종류로 하여 우연과 좌연을 한 올씩 번갈아 끼우고 경사 밀도는 100올/2.54cm로 한 것도 있다. 저급품에는 위사에 흑색으로 염색한 48's를 사용한 것도 있다. 무거운 것으로는 가구용이나 커튼 감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바탕 조직을 아뮤어로 하고 브로드 케이드 문직으로 한 것이며 소모 직물이다.

* 아스트라한(Astrakhan Cloth)

모, 모헤어, 면, 레이노,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을 사용한 부드러운 털로 덮인 두꺼운 직물이다. 경빌로드직과 위빌로드직이 있다. 모두 지사는 소모사, 면사, 스프사를 모경사 또는 모위사에는 양모라던가 모헤어를 사용한다. 모헤어를 사용하면 아름다운모의 잔털이 얻어진다. 염색의 색조는 흑색이 많다. 경빌로드직은 곱슬곱슬한 실을 모경사로 사용하고 한쪽 끝에 칼을 붙인 동선의 위에 제작하여 간다. 제작한 후 동선을 빼내면 모경사가 절단되어 모의 잔털을 만들 수 있다. 단에 칼이 붙지 않은 동선을 넣어 제작하면 곱슬곱슬한 올가미를 만들 수 있다. 위모 빌로드직은 곱슬곱슬한 실을 모위사로 사용하여 경사 몇 올씩의 위를 부출시켜 제작한 후 경사 위에 부출된 한 가운데에서 모위사를 절개하여 모의 잔털을 만든다. 모위사를 절개하지 않고서 바닥을 줄여 모위사에 곱슬곱슬한 올가미를 만든 것도 있다. 올가미를 절단하여 모의 잔털로 한 프라시 아스트라한(Plush astrakhan cloth)과 올가미를 그대로 둔 테리 아스트라한(terry astrakhan)이 있다. 원래 러시아의 아스트라한(Astrakhan) 또는 페르시아 기타 아시아 지방에서 생산되

는 새끼 양의 양피(karakul Lamb) 또는 그의 양모로써 제작한 직물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부여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종류의 양모는 오히려 보카라(Bokhara, Bukhara) 지방에서 많이 생산된다. 오버, 조끼, 방한모, 장식 등으로 사용한다.

* 알파카(Alpaca)

알파카, 모헤어, 면, 레이온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래는 경사에 면, 위사에 알파카의 능직이라던가 평직의 교직물이다. 얇고 약간 거친 맛을 가진 특유한 광택이 있다. 흑색, 쥐색, 다색, 감색 등으로 무지염 한 것이라던가 또는 줄무늬가 들어 있다. 알파카 대신에 모헤어를 사용한 것도 있다. 알파카는 남미 페루의 고산지대에 사는 산양으로써 남미 라마라고도 한다. 모질은 강하고 특수한 촉감이 있다. 표면은 평활하고 우수한 광택이 있다. 복지 안감으로 사용된다.

* 양단(Brocade)

주자 바탕에 무늬를 나타낸 문직물로서 무늬 부분은 위 이중직이다.

* 양류촉면(Yoryu Crepe, Crepon)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면,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한 편촉면이다. 견 양류촉면은 경사에 무연사 위사에 편연 강연사의 꼬임 회수 2,800~3,000T/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견 양류촉면의 위사는 통상우연이다. 제작 후 정련하여 주름을 내면 바람에 살랑거리는 버드나무의 작은 가지와 같이 불규칙한 윤곽의 가로 방향 굽슬 주름이 나타난다. 이것을 편주름 이라고 한다. 양류촉면 등 편촉면 특유의 주름이다. 45~60g 정도이다. 80's의 면사를 위사로 사용한 양류 촉면이 있다. 마무리는 유연하고 피부 촉감이 좋은 것으로 한다. 위사의 꼬임 호수는 40TPI 정도이다. 고급품이다. 인견사를 사용한 양류촉면은 그다지 생산되고 있지 않다. 인견촉면의 편주름으로써는 요루 조오젯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양류 조오젯은 양류촉면과 조오젯의 합한 것과 같은 것이다. 주름 내기를 한 것으로써 조오젯에 편주름이 추가되어 있게 보인다. 직물의 마무리에 양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가는 가로 줄무늬 상태라던가 약간 거친 가로 줄무늬 상태의 모양을 조각한 엠보스 롤러를 사용한다. 정련 주름내기를 시행하기 전에 조각한 2개의 엠보스 롤러 사이

을 통과시키면 직물의 표면에 편측면 모양의凸돌기가 생긴다. 따라서 강연사하의 꼬임이 되돌려지는데 의한 주름이 생기는 형상을 미리 정리할 수가 있다. 원피스, 투피스, 블라우스 등에 사용한다.

* 엘러펀트 크레이프(Elephant crepe)

경사에 무연 생사 또는 인견사 등을, 위사에 S와 Z 강연 생사 또는 인견사 등을 4올 또는 6올 교대로 사용하여 정련함으로써 특수한 주름을 나타낸 직물.

* 려(Gauge)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리넨 등을 사용한다. 려에는 횡려와 종려가 있다. 얽힘직과 평직의 혼합 조직이다. 횡려는 경사를 일정 올 수의 위사로 평직으로 조직된 후 위사에 경사를 2올 얹어 합하여 위사에 조직된다. 즉 위사를 일정수 타입별로 얹히는 곳을 만드는 것이다. 직물 면은 평직에 일정 간격을 두고 극목(이것을 려목이라고 한다)의 가로 단이 나타나 보인다. 평직으로 조직한 위사의 타입수 즉 비틀림 목과 비틀림 목 사이의 위사의 타입 수는 반드시 기수로 한다. 그의 수에 따라서 3월려, 5월려, 7월려 등이 있다. 3올여, 5올여, 7올여라고도 한다. 종려는 일정 간극별로 경사 3올씩을 끝까지 얹어 짜고 기타의 경사는 끝까지 평직으로 제직한 것이다. 평직에 일정한 간격으로 극목의 가로 줄무늬가 나타난다. 얽힘직 부분 이외의 지조직을 평직으로 한 것이 보통으로써 평려라고 한다. 드물게 지조직을 사문직으로 한 것이 있고 이것을 능려라고 한다. 또 평여의 바닥에 사조직으로써 무늬를 나타낸 것을 문려(jacquard gauge)라고 한다. 변화 조직에 빌딩직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 평직 바닥에 여조직으로써 극간이 있는 부분을 장방형으로 규칙 바르게 제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유리창이 배열된 빌딩같이 보인다. 려의 영어 명칭은 gauge이지만 일본어로 가제라고 하는 것도 영어 명은 역시 gauze이다. 가제(cotton gauze)는 평직으로써 경위사의 밀도를 성기게 하여 제직한다. 붕대라던가 유아복, 손수건으로 사용된다. 이중직으로 한 것도 있다.

* 연묘포(Tabacco cloth)

담배 등의 묘상에 사용하는 얇은 평직물

* 염뢰(Shioze)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한다. 염뢰는 원래 내수용 견직물의 일종이었으나 조밀한 경사에 굵은 위사를 조직시킨 생지 직물이다. 직물 면에는 가는 횡무가 나타나 보여 호백직에 근사한 외관을 갖는다. 두꺼운 우이중에 근사하고 염뢰 우이중이라고도 불려진다. 조직이 조밀한 것으로써 45g~113g 정도가 많다. 인견 염뢰에는 꼬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꼬임이 있는 것은 위사에 80회 정도의 편연(보통 우연)을 주는 것으로써 무연은 위사가 무연의 것이다. 경사는 모두 무연사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실은 경위사 120d를 사용하는 것이 많으나 150d를 사용한 것도 있다. 인견 염뢰는 백색 외에 무지염, 날염되고 또 재봉사로써 무늬를 넣어 사용된다. 경사에 염색사를 사용하여 무늬를 나타낸 줄무늬 염뢰도 많다.

* 오건디(Organdie, Organdy)

면, 견,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올간디라고도 부른다. 원래 면직물이다. 평직으로 된 투과하여 보이는 직물로써 가실까 실한 촉감이 있다. 오건디가 갖는 특유한 맛은 마무리에 의하여 부여된다. 경사에 60's~100's 위사에 80's~150's의 단사로 고급 세번수를 사용한다. 위사 쪽의 실이 약간 더 가늘고 밀도도 성길다. 제작한 직물을 황산 처리에 의한 것은 광택이 있는 딱딱한 촉감의 품미가 특히 우수하고 세탁하여도 변하지 않는다. 두껍게 호부하여 스위싱 칼렌더 마무리한 것은 세탁하면 촉감의 딱딱함이 빠져버린다. 견 오건디는 무연 또는 1,500T/M 정도의 편연을 준 생사를 경위사로 사용하고 제작 후 정련하지 않고 딱딱한 촉감과 광택이 나도록 마무리한다. 나일론 오건디는 경위사에 가는 나일론 장섬유를 사용한다. 굵은 올의 줄무늬사를 사용하여 가로 줄무늬라던가 격자로 짜서 나타낸 것도 있다. 수지로써 딱딱한 촉감으로 마무리한다. 용도는 여름용 드레스, 블라우스, 여성용 모자, 손수건, 커튼, 조화, 장식용, 인형의 옷 등이다.

* 오리엔탈 크레이프(Oriental Crepe)

레이온, 견,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하는데 경축면으로써 레이온이 많다. 보통 경

사에 75d의 큐프라 강연사(2,400~3,000T/M)를 좌연과 우연을 2올씩 교호로 배열하고 이것에 60d라던가 75d의 큐프라 무연사를 위입하게 한 것으로써 밀도는 90×73~73×87올/inch 정도이다. 무지염, 날염하여 사용된다. 광택이 있는 염색사를 사용하여 주자 줄무늬를 제작한 것이라던가 다른 경사에 모양사를 제작하여 우라 기리(裏切)를 표현한 것도 있다. 여성복, 아동복 등으로 사용한다.

* 오블리크 두둑직(Oblique rib weave)

경 두둑직과 위 두둑직을 서로 마주보도록 배합한 것.

* 오스나버그(Osnaburg)

면, 리넨, 레이온 등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리넨 직물이었으나 현재는 면 쪽이 많다. 8~12's의 태번수의 면사를 경위사로 사용하여 성기게 짜기 때문에 바닥이 거칠고 제작사의 섬도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보이는 거칠고 튼튼한 직물이다. 생지로도 사용하지만 무지염으로 하기도 하고 세로 줄무늬라던가 격자로 날염하고 칼렌더하여 양면을 비교적 평활히 하여 광택을 주어 마무리하여 사용한다. 원산지인 독일의 하노바주 오스나브릭(Osnabruck)의 이름을 취하였다. 미표백한 것은 곡물 포대, 울이 적은 것은 작업복, 스포츠 웨어, 레저 웨어 등으로 울이 많은 것은 침대 덮개, 햇빛 가리개, 커튼 등으로 사용한다.

* 오트만(Ottoman)

견, 모,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비닐론,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경사에 가는 울의 생사를 치밀하게 배열하여 위사에 굵은 경사, 소모사 또는 면사를 한 개구에 2올 이상 타입하여 경무직, 침모직으로 제작한 것이다. 횡무 직물 중에서는 횡무가 가장 크고 폭이 넓고 확실하다. 이랑에는 둥근 맛이 있다. 직물 자체도 가장 두껍다. 위사에 굵은 실과 가는 울의 실을 몇 올씩 교호하게 타입 하여 이랑을 한층 확실하게 나타낸 것도 있다. 위사에 편연의 강연사를 사용한 것을 오토만 크레이프(ottoman crepe)라고 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소재의 실을 사용하여 직물의 표면에는 굵고 폭이 넓은 횡무가 나타난다. 모직 오토만은 경위사에 소모사를 사용하고 피경모직으로 한다. 조직에 따라 굵고 가는 차이는 있으나 표면에는 횡무가 나타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소재의 실을 사

용하여 직물의 표면에는 굵고도 폭이 넓은 횡무가 나타난다. 이면은 언뜻 보아 평직과 같이 보인다. 이러한 횡무의 상태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두둑이 섬세한 것을 Soleil, 조금 큰 것을 오토만, 작은 것과 큰 것이 차례로 배열된 것을 오토만 코드(Ottoman cord)라고 한다. 견이라던가 고급 합섬 오토만 중에는 견이중의 비로드직으로 제직하고 모경사와 동선을 가제직하여 제직후 직전에서 모경사를 절개하지 않고 동선을 빼 나가면서 모경사가 부출 한대로 넓은 폭의 횡무를 만드는 것이 있다 일종의 올가미 비로드라고도 한다. 용도는 주로 여성용 코트, 슈트, 장식 등이다.